

사회에서의 호칭, 지칭

II

13. 직장 사람들과 그 가족에 대하여

14. 지인에 대하여

15. 직원과 손님 사이

13. 직장 사람들과 그 가족에 대하여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루의 반 이상을 직장에서 보낸다. 직장에서 많은 사람들과 만나게 되고, 만나는 사람들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도 해서 직장에서의 언어 예절은 매우 조심스럽다.

상사, 직급이 같은 동료, 아래 직원에 대한 호칭, 지칭

먼저 오늘날 널리 쓰이고 있는 ‘미스 ○’, ‘미스터 ○’의 ‘미스’, ‘미스터’는 외국어이므로 어느 경우에도 쓰기에 적합하지 않은 말이다. 또, 상사, 동료, 아래 직원에 대한 호칭과 지칭은 상대의 직함과 성별, 상대와의 친밀도 등에 따라 적절한 말을 골라 쓸 수 있다.

상사를 부르거나 가리키는 말은 ‘선생님’, ‘○ 선생님’, ‘○○○ 선생님’, ‘○ 선배님’, ‘○○○ 선배님’, ‘○ 여사님’, ‘○○○ 여사님’, ‘부장님’, ‘○ 부장님’, ‘○○○ 부장님’, ‘총무부장님’ 등이다. 직함이 있는 상사를 부르거나 가리킬 때는 ‘부장님’, ‘○ 부장님’, ‘○○○ 부장님’, ‘총무부장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여기서 ‘부장’은 상사의 직함을 대표해서 쓴 말이다.) 직함이 있는 상사는 직함에 ‘-님’을 붙여 ‘부장님’처럼 부르고 가리킨다. 그리고 과장이나 부장이 여러 명 한 자리에 있어 꼭 구분을 해서 말해야 하는 경우에는 ‘총무부장님’ 또는 ‘○○○ 부장님’처럼 직함 앞에 부서나 이름을 붙여 부르고 가리킨다.

자기와 직급이 같은 동료를 부르거나 가리키는 말은 ‘○○○ 씨’, ‘○○ 씨’, ‘선생님’, ‘○ 선생님’, ‘○○○ 선생님’, ‘○ 선생’, ‘○○○ 선생’, ‘선배님’, ‘○ 선배님’, ‘○○○ 선배님’, ‘선배’, ‘○ 선배’, ‘○○○ 선배’, ‘형’, ‘○ 형’, ‘○○ 형’, ‘○○○ 형’, ‘언니’, ‘○○ 언니’, ‘○ 여사’, ‘○○○ 여사’, ‘과장님’, ‘○ 과장님’, ‘○ 과장’, ‘○○○ 과장’ 등이다.

직함이 없는 동료끼리는 남녀를 불문하고 ‘○○○ 씨’, 상황에 따라 이름만으로 ‘○

○ 씨, 직종에 따라서는 ‘선생님’ 또는 ‘○ 선생님’, ‘○○○ 선생님’, ‘○ 선생’, ‘○○○ 선생’으로 부르고 가리킨다. 친한 사이인 경우 ‘○○야’처럼 이름만으로 호칭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사석이면 몰라도 공적인 직장에서 이렇게 부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직함이 없는 선배 또는 직급은 같지만 나이가 많은 동료 직원을 ‘○○○ 씨’로 부르고 가리키기는 어렵다. 이 경우는 ‘-님’을 붙여 ‘선배님’, ‘○ 선배님’, ‘○○○ 선배님’, ‘선생님’ 또는 ‘○ 선생님’, ‘○○○ 선생님’처럼 부르고 가리킨다. 상황에 따라 ‘선배’, ‘○ 선배’, ‘○○○ 선배’ 등으로 부르고 가리킬 수도 있다.

그런데 이 같은 상황에서 남자 직원끼리 ‘○ 형’ 하는 것은 곤란하다. 가족 호칭, 지칭에서 ‘형’은 윗사람을 부르고 가리키는 말이지만 사회에서 ‘형’은 주로 동년배나 아랫사람에게 쓰는 말이기 때문이다.

남자 직원이 동년배이거나 나이 차가 적은 동료 남자 직원을 ‘형’, ‘○ 형’, ‘○○ 형’, ‘○○○ 형’으로 부르고 가리킬 수 있지만 여직원이 남자 직원을 ‘○ 형’이라고 부르고 가리키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다.

여직원이 여직원을 부르고 가리킬 경우에는 ‘언니’나 ‘○○ 언니’라고 할 수 있고 나이 지긋한 여자 직원에게 ‘○ 여사’ 또는 ‘○○○ 여사’라고 부르고 가리킬 수 있다. 그러나 ‘○ 언니’ 또는 ‘미스 ○ 언니’처럼 부르고 가리키는 것은 좋지 않다.

과장이 과장을 부르고 가리키는 경우처럼 직함이 있는 동료 사이에서는 직함을 붙여 ‘과장님’, ‘○ 과장님’, ‘○ 과장’, ‘○○○ 과장’처럼 부르고 가리킬 수 있고, 직함이 없는 동료들끼리 부르고 가리키는 것처럼 성, 이름, 성명 뒤에 ‘씨’, ‘선생님’, ‘선생’, ‘선배님’, ‘선배’, ‘형’, ‘언니’, ‘여사’ 등을 붙여 부르고 가리킬 수 있다.

아래 직원을 부르거나 가리키는 말은 ‘○○ 씨’, ‘○○○ 씨’, ‘○ 선생님’, ‘○○○ 선생님’, ‘○ 선생’, ‘○○○ 선생’, ‘○ 형’, ‘○○ 형’, ‘○○○ 형’, ‘○ 여사’, ‘○○○ 여사’, ‘○ 군’, ‘○○ 군’, ‘○○○ 군’, ‘○ 양’, ‘○○ 양’, ‘○○○ 양’, ‘과장님’, ‘○ 과장님’, ‘○ 과장’, ‘○○○ 과장’, ‘총무과장’ 등이다.

상사가 직함이 없는 아랫사람을 부르고 가리킬 때는 ‘○○ 씨’, ‘○○○ 씨’를 쓰고 아랫사람이라도 나이가 많은 경우에는 ‘○ 선생님’, ‘○○○ 선생님’, ‘○ 선생’, ‘○○○

선생'으로 부르고 가리킨다. 동년배이거나 나이 차가 적은 남자 직원에게는 '○ 형', '○○ 형', '○○○ 형' 할 수도 있고 나이 든 기혼의 여자 직원에게는 아랫사람이라도 '○ 여사', '○○○ 여사' 할 수 있다. 또 '○○○ 씨' 하기가 어색할 정도로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어린 직원에게는 '○ 군', '○○ 군', '○○○ 군' 또는 '○ 양', '○○ 양', '○○○ 양'으로 부르고 가리킬 수 있다. 그러나 상사가 부하 직원을 부를 때라도 '○○야' 한다거나 '○ 씨'로 부르는 것은 좋지 않다. 공적인 직장에서 '○○야' 하는 것이 어렵고, 또 '○ 씨'의 '씨'가 과거에는 존칭이었지만 오늘날 이름을 넣지 않고 성(姓)만으로 '○ 씨'하는 표현은 높이는 느낌이 거의 없으므로 쓰지 않는 것이 좋다. 아랫사람에게 직함이 있는 경우에는 직함을 붙여 '과장님', '○ 과장님', '○ 과장', '○○○ 과장', '총무과장'처럼 부르고 가리킬 수 있다. 직급이 같은 아랫사람 여럿이 한 자리에 있어 구분해서 말해야 할 때에는 '○○○ 과장'처럼 이름에 직함을 붙여 부르고 가리킨다.

표 II-1 상사, 직급이 같은 동료, 아래 직원에 대한 호칭, 지칭

	상 사	직급이 같은 동료	아래 직원
호 칭 및 지 칭	선생님, ○ 선생님, ○○○ 선생님, ○ 선배님, ○○○ 선배님, ○ 여사님, ○○○ 여사님, 부장님, ○ 부장님, ○○○ 부장님, 총무부장님	○○○ 씨, ○○ 씨, 선생님, ○ 선생님, ○○○ 선생님, ○ 선생, ○○○ 선생, 선배님, ○ 선배님, ○○○ 선배님, 선배, ○ 선배, ○○○ 선배,	○○ 씨, ○○○ 씨, ○ 선생님, ○○○ 선생님, ○ 선생, ○○○ 선생, ○ 형, ○○ 형, ○○○ 형, ○ 여사, ○○○ 여사,

Ⅱ. 사회에서의 호칭, 지칭

	상 사	직급이 같은 동료	아래 직원
호칭 및 지칭		형, ○ 형, ○○ 형, ○○○ 형, 언니, ○○ 언니, ○ 여사, ○○○ 여사, 과장님, ○ 과장님, ○ 과장, ○○○ 과장	○ 군, ○○ 군, ○○○ 군, ○ 양, ○○ 양, ○○○ 양, 과장님, ○ 과장님, ○ 과장, ○○○ 과장, 총무과장

직장 사람들의 가족에 대한 호칭, 지칭

상사의 아내, 남편, 자녀

직장 상사의 아내는 ‘사모님’, ‘아주머님’, ‘아주머니’, ‘○ 선생님’, ‘○○○ 선생님’, ‘○ 과장님’, ‘○○○ 과장님’, ‘여사님’, ‘○ 여사님’으로 부른다. ‘사모님’은 원래 스승의 아내를 부르고 가리키는 말이었으나 현실적으로윗사람의 아내를 부르는 말로 확대되었으므로 ‘사모님’이라고 부를 수 있다. 또, 보편적인 호칭으로 많이 쓰이는 ‘아주머님’, ‘아주머니’나 ‘○ 선생님’, ‘○○○ 선생님’으로 부를 수도 있고, 직장 상사 아내의 직함을 알면 ‘○ 과장님’, ‘○○○ 과장님’처럼 부를 수도 있다. (직함으로 부르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직함을 안다는 것을 전제로 하며, 아래도 마찬가지이다.)

직장 상사의 아내를 당사자나 해당 상사에게 지칭할 때는 호칭인 ‘사모님’, ‘아주머니’, ‘아주머니’, ‘○ 선생님’, ‘○○○ 선생님’, ‘○ 과장님’, ‘○○○ 과장님’, ‘여사님’, ‘○ 여사님’을 그대로 쓰고, 그 밖의 사람에게는 ‘사모님’, ‘과장님 부인’, ‘○ 과장님 부인’, ‘○○○ 과장님 부인’, ‘과장님 사모님’, ‘○ 과장님 사모님’, ‘○○○ 과장님 사모님’ 등으로 가리킨다.

직장 상사의 남편을 호칭할 때나 당사자, 해당 상사에게 지칭할 때는 ‘선생님’, ‘○ 선생님’, ‘○○○ 선생님’, ‘과장님’, ‘○ 과장님’, ‘○○○ 과장님’을 쓴다. 직장 상사의 남편을 해당 상사에게 ‘바깥어른’으로 가리킬 수 있다. 그 밖의 사람에게는 ‘과장님 바깥어른’, ‘○ 과장님 바깥어른’, ‘○○○ 과장님 바깥어른’, ‘과장님 바깥양반’, ‘○ 과장님 바깥양반’, ‘○○○ 과장님 바깥양반’, ‘과장 바깥양반’, ‘○ 과장 바깥양반’, ‘○○○ 과장 바깥양반’ 등으로 지칭한다.

직장 상사의 자녀를 부르는 말은 ‘○○[이름]’, ‘○○○ 씨’, ‘과장님’, ‘○ 과장님’, ‘○ 과장’이다. 직장 상사 자녀의 나이나 상황에 따라 적절한 호칭으로 부를 수 있는데 가령 상사의 자녀가 동년배이거나 나이가 많은 경우에는 ‘선생님’이라고 부를 수도 있다.

상사의 자녀를 당사자와 해당 상사에게 지칭할 때는 ‘아드님’, ‘파님’, ‘자제분’을 쓰고 그 밖에 ‘○○[이름]’, ‘○○○ 씨’, ‘과장님’, ‘○ 과장님’, ‘○ 과장’을 쓴다. 상사의 자녀가 동년배이거나 나이가 많은 경우 그 당사자에게 ‘선생님’이라고 지칭할 수 있다. 그 밖의 사람에게 지칭할 때는 ‘과장님 아드님’, ‘○ 과장님 아드님’, ‘○○○ 과장님 아드님’, ‘과장님 파님’, ‘○ 과장님 파님’, ‘○○○ 과장님 파님’, ‘과장님 자제분’, ‘○ 과장님 자제분’, ‘○○○ 과장님 자제분’이라고 한다.

Ⅱ. 사회에서의 호칭, 지칭

표 Ⅱ-2 상사의 아내, 남편, 자녀에 대한 호칭, 지칭

		상사의 아내	상사의 남편	상사의 자녀
호 칭		사모님, 아주머님, 아주머니, ○ 선생님, ○○○ 선생님, ○ 과장님, ○○○ 과장님, 여사님, ○ 여사님	선생님, ○ 선생님, ○○○ 선생님, 과장님, ○ 과장님, ○○○ 과장님	○○[이름], ○○○ 씨, 과장님, ○ 과장님, ○ 과장
지 칭	당 사 자 에 게	사모님, 아주머님, 아주머니, ○ 선생님, ○○○ 선생님, ○ 과장님, ○○○ 과장님, 여사님, ○ 여사님	선생님, ○ 선생님, ○○○ 선생님, 과장님, ○ 과장님, ○○○ 과장님	○○[이름], ○○○ 씨, 과장님, ○ 과장님, ○ 과장, 아드님, 따님, 자제분
	해 당 상 사 에 게	사모님, 아주머님, 아주머니, ○ 선생님, ○○○ 선생님, ○ 과장님, ○○○ 과장님, 여사님, ○ 여사님	바깥어른, 선생님, ○ 선생님, ○○○ 선생님, 과장님, ○ 과장님, ○○○ 과장님	아드님, 따님, 자제분, ○○[이름], ○○○ 씨, 과장님, ○ 과장님, ○ 과장
	그 밖 의 사 람 에 게	사모님, 과장님 부인, ○ 과장님 부인, ○○○ 과장님 부인,	과장님 바깥어른, ○ 과장님 바깥어른, ○○○ 과장님 바깥어른,	과장님 아드님, ○ 과장님 아드님, ○○○ 과장님 아드님, 과장님 따님, ○ 과장님 따님,

		상사의 아내	상사의 남편	상사의 자녀
지 칭	그 밖 의 사 람 에 게	과장님 사모님, ○ 과장님 사모님, ○○○ 과장님 사모님,	과장님 바깥양반, ○ 과장님 바깥양반, ○○○ 과장님 바깥양반, 과장 바깥양반, ○ 과장 바깥양반, ○○○ 과장 바깥양반	○○○ 과장님 따님, 과장님 자제분, ○ 과장님 자제분, ○○○ 과장님 자제분

직급이 같은 동료나 아래 직원의 아내, 남편, 자녀

직급이 같은 동료나 아래 직원의 아내를 부르는 말은 ‘○○ 씨’, ‘○○○ 씨’, ‘아주머니’, ‘아주머니’, ‘○ 선생님’, ‘○○○ 선생님’, ‘○ 과장님’, ‘○○○ 과장님’이다. 직급이 같은 동료나 아래 직원의 아내를 당사자, 해당 동료 및 해당 아래 직원에게 지칭할 때는 호칭인 ‘○○ 씨’, ‘○○○ 씨’, ‘아주머니’, ‘아주머니’, ‘○ 선생님’, ‘○○○ 선생님’, ‘○ 과장님’, ‘○○○ 과장님’을 그대로 쓴다. 동료나 아래 직원의 아내를 해당 동료 및 해당 아래 직원에게 ‘부인’으로 지칭할 수 있다. 그 밖의 사람에게는 ‘과장님 부인’, ‘○ 과장님 부인’, ‘○○○ 과장님 부인’, ‘과장 부인’, ‘○ 과장 부인’, ‘○○○ 과장 부인’, ‘○○○ 씨 부인’처럼 해당 동료의 호칭에 ‘부인’을 붙여 지칭한다.

직급이 같은 동료나 아래 직원의 남편을 부르는 말은 ‘○○ 씨’, ‘○○○ 씨’, ‘선생님’, ‘○ 선생님’, ‘○○○ 선생님’, ‘과장님’, ‘○ 과장님’, ‘○○○ 과장님’이다. 직급이 같은 동료나 아래 직원의 남편을 그 당사자에게 지칭하는 말도 호칭과 같은 ‘○○ 씨’, ‘○○○ 씨’, ‘선생님’, ‘○ 선생님’, ‘○○○ 선생님’, ‘과장님’, ‘○ 과장님’, ‘○○○ 과장님’이다. 직급이 같은 동료나 아래 직원의 남편을 해당 동료나 아래 직원에게는 ‘남편’, ‘부군’, ‘바깥양반’으로 지칭하고 호칭인 ‘○○ 씨’, ‘○○○ 씨’, ‘선생님’, ‘○ 선생님’, ‘○○○ 선생님’, ‘과장님’, ‘○ 과장님’, ‘○○○ 과장님’도 쓸 수 있다.

Ⅱ. 사회에서의 호칭, 지칭

그 밖의 사람에게는 ‘과장님 남편’, ‘○ 과장님 남편’, ‘○○○ 과장님 남편’, ‘과장 남편’, ‘○ 과장 남편’, ‘○○○ 과장 남편’, ‘○○○ 씨 남편’, ‘과장님 바깥양반’, ‘○ 과장님 바깥양반’, ‘○○○ 과장님 바깥양반’, ‘과장 바깥양반’, ‘○ 과장 바깥양반’, ‘○○○ 과장 바깥양반’, ‘○○○ 씨 바깥양반’ 으로 지칭한다.

직급이 같은 동료나 아래 직원의 자녀를 부르는 말은 ‘○○[이름]’, ‘○○○ 씨’, ‘과장님’, ‘○ 과장님’, ‘○ 과장’ 이다. 직급이 같은 동료나 아래 직원의 자녀를 그 당사자와 해당 동료 및 해당 아래 직원에게 지칭할 때는 호칭인 ‘○○[이름]’, ‘○○○ 씨’, ‘과장님’, ‘○ 과장님’, ‘○ 과장’ 과 그 밖에 ‘아드님’, ‘아들’, ‘따님’, ‘딸’, ‘자제분’ 을 쓰는 것이 일반적이다. 상황에 따라 당사자에게는 ‘자네’, ‘너’ 라고 지칭할 수 있다. 그 밖의 사람에게는 ‘과장님 아드님’, ‘○ 과장님 아드님’, ‘○○○ 과장님 아드님’, ‘과장님 아들’, ‘○ 과장님 아들’, ‘○○○ 과장님 아들’, ‘과장 아들’, ‘○ 과장 아들’, ‘○○○ 과장 아들’, ‘○○○ 씨 아들’, ‘과장님 따님’, ‘○ 과장님 따님’, ‘○○○ 과장님 따님’, ‘과장님 딸’, ‘○ 과장님 딸’, ‘○○○ 과장님 딸’, ‘과장 딸’, ‘○ 과장 딸’, ‘○○○ 과장 딸’, ‘○○○ 씨 딸’, ‘과장님 자제분’, ‘○ 과장님 자제분’, ‘○○○ 과장님 자제분’ 등으로 가리킨다.

표 II-3 동료나 아래 직원의 아내, 남편, 자녀에 대한 호칭, 지칭

	동료나 아래 직원의 아내	동료나 아래 직원의 남편	동료나 아래 직원의 자녀
호칭	○○ 씨, ○○○ 씨, 아주머님, 아주머니, ○ 선생님, ○○○ 선생님, ○ 과장님, ○○○ 과장님	○○ 씨, ○○○ 씨, 선생님, ○ 선생님, ○○○ 선생님, 과장님, ○ 과장님, ○○○ 과장님	○○[이름], ○○○ 씨, 과장님, ○ 과장님, ○ 과장
지칭	당사자에게	○○ 씨, ○○○ 씨, 선생님, ○ 선생님, ○○○ 선생님, 과장님, ○ 과장님, ○○○ 과장님	○○[이름], ○○○ 씨, 과장님, ○ 과장님, ○ 과장, 아드님, 아들, 따님, 딸, 자제분
	해당 동료 및 해당 아래 직원에게	아주머님, 아주머니, 부인, ○○ 씨, ○○○ 씨, 선생님, ○ 선생님, ○○○ 선생님, 과장님, ○○○ 과장님	남편, 부군, 바깥양반, 아드님, 아들, 따님, 딸, 자제분, ○○ 씨, ○○○ 씨, 선생님, ○ 선생님, ○○○ 선생님, 과장님, ○ 과장님, ○○○ 과장님

Ⅱ. 사회에서의 호칭, 지칭

		동료나 아래 직원의 아내	동료나 아래 직원의 남편	동료나 아래 직원의 자녀
지칭	그 밖의 사람에게	과장님 부인, ○ 과장님 부인, ○○○ 과장님 부인, 과장 부인, ○ 과장 부인, ○○○ 과장 부인, ○○○ 씨 부인	과장님 남편, ○ 과장님 남편, ○○○ 과장님 남편, 과장 남편, ○ 과장 남편, ○○○ 과장 남편, ○○○ 씨 남편, 과장님 바깥양반, ○ 과장님 바깥양반, ○○○ 과장님 바깥양반, 과장 바깥양반, ○ 과장 바깥양반, ○○○ 과장 바깥양반, ○○○ 씨 바깥양반	과장님 아드님, ○ 과장님 아드님, ○○○ 과장님 아드님, 과장님 아들, ○ 과장님 아들, ○○○ 과장님 아들, 과장 아들, ○ 과장 아들, ○○○ 과장 아들, ○○○ 씨 아들, 과장님 따님, ○ 과장님 따님, ○○○ 과장님 따님, 과장님 딸, ○ 과장님 딸, ○○○ 과장님 딸, 과장 딸, ○ 과장 딸, ○○○ 과장 딸, ○○○ 씨 딸, 과장님 자제분, ○ 과장님 자제분, ○○○ 과장님 자제분

14. 지인에 대하여



우리 사회가 현대 사회로 변화하면서 사회 생활에서의 만남이 친척 만나는 것만큼이나 잦아졌다. 그러나 호칭, 지칭은 이러한 사회의 변화에 발맞추어 발달하지는 못하였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부르는 것이 올바른지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일 때도 많다. 지인에 대한 호칭, 지칭은 전통 예절에 어긋나지 않으면서도 시대에 맞는 말을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

친구의 아내

친구의 아내에 대한 호칭은 ‘아주머니’, ‘○○ 씨’, ‘○○○ 씨’, ‘○○[친구 자녀] 어머니’, ‘○○ 엄마’, ‘○ 여사’, ‘여사님’, ‘○ 여사님’, ‘과장님’, ‘○ 과장님’, ‘○ 선생’, ‘선생님’, ‘○ 선생님’을 쓸 수 있다. 젊은 층에서는 이름을 부르고, 집안끼리 잘 아는 사이일 때는 ‘○○[친구 자녀] 어머니’, ‘○○ 엄마’라고 하고, 나이가 든 사람들은 ‘○ 여사’, ‘여사님’, ‘○ 여사님’, 친구의 아내가 직장 생활을 할 경우에는 직장에서의 직함으로 ‘과장님’, ‘○ 과장님’이라고 부르는 현실을 존중한 것이다. 또 친구의 아내에게 예를 갖추어 ‘○ 선생’, ‘선생님’, ‘○ 선생님’이라고 부를 수 있다. 흔히 친구의 아내를 ‘계수 씨’, ‘계수씨’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지만 ‘제수씨’, ‘계수씨’라고 부르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또 친구의 아내를 ‘부인’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지만, 자신의 아내와 친구의 아내를 혼동할 수 있으므로 친구의 아내를 ‘부인’이라고 부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당사자에게 지칭할 때는 호칭을 그대로 쓴다. 해당 친구에게는 ‘부인’, ‘집사람’, ‘안사람’, ‘○○ 씨’, ‘○○○ 씨’, ‘○○[친구 자녀] 어머니’, ‘○○ 엄마’, ‘○ 과장님’으로 지칭한다. ‘합부인’, ‘자네 합부인’은 현실적으로 잘 쓰이지 않는 말이므로 권장할 만하지 않다.

친구의 아내를 나의 아내에게는 ‘○○[친구] 부인’, ‘○○[친구] 집사람’, ‘○○[친구] 안사람’, ‘○○[친구] 처’, ‘○○[친구] 씨 부인’, ‘○○[친구 자녀] 어머니’, ‘○○ 엄마’, ‘○ 과장 부인’으로 지칭한다. 또 친구의 아내가 직장 생활을 할 경우에는 ‘○ 과

장님'이라고 가리킬 수도 있다. 자녀에게는 '○○[친구 자녀] 어머니', '○○ 엄마', '아주머니', '○○[지역] 아주머니'와 직함을 이용한 '○ 과장님'으로 가리킨다.

다른 친구에게는 '○○[친구 부인]', '○○[친구 집사람]', '○○[친구] 안사람', '○○[친구] 처', '○○[친구] 씨 부인', '○○ 씨', '○○○ 씨', '○○[친구 자녀] 어머니', '○○ 엄마', '○ 과장 부인'으로 지칭한다.

표 II-4 친구의 아내에 대한 호칭, 지칭

호 칭		아주머니, ○○ 씨, ○○○ 씨, ○○[친구 자녀] 어머니, ○○ 엄마, ○ 여사, 여사님, ○ 여사님, 과장님, ○ 과장님, ○ 선생, 선생님, ○ 선생님
지 칭	당사자에게	아주머니, ○○ 씨, ○○○ 씨, ○○[친구 자녀] 어머니, ○○ 엄마, ○ 여사, 여사님, ○ 여사님, 과장님, ○ 과장님, ○ 선생, 선생님, ○ 선생님
	해당 친구에게	부인, 집사람, 안사람, ○○ 씨, ○○○ 씨, ○○[친구 자녀] 어머니, ○○ 엄마, ○ 과장님
	아내에게	○○[친구] 부인, ○○[친구] 집사람, ○○[친구] 안사람, ○○[친구] 처, ○○[친구] 씨 부인, ○○[친구 자녀] 어머니, ○○ 엄마, ○ 과장 부인, ○ 과장님

지 칭	자녀에게	○○[친구 자녀] 어머니, ○○ 엄마, 아주머니, ○○[지역] 아주머니, ○ 과장님
	다른 친구에게	○○[친구] 부인, ○○[친구] 집사람, ○○[친구] 안사람, ○○[친구] 처, ○○[친구] 씨 부인, ○○ 씨, ○○○ 씨, ○○[친구 자녀] 어머니, ○○ 엄마, ○ 과장 부인

친구의 남편

친구의 남편을 부르는 말은 ‘○○ 씨’, ‘○○○ 씨’, ‘○○ [친구 자녀] 아버지’, ‘○○ 아빠’, ‘과장님’, ‘○ 과장님’, ‘선생님’, ‘○ 선생님’이다.

당사자에게 지칭하는 말은 호칭과 같다. 해당 친구에게 친구의 남편을 지칭할 때는 ‘남편’, ‘바깥양반’, ‘○○ 씨’, ‘○○○ 씨’, ‘○○[친구 자녀] 아버지’, ‘○○ 아빠’, ‘○ 과장님’을 쓸 수 있다. 친구의 남편을 내 남편에게 지칭할 때는 ‘○○ [친구] 남편’, ‘○○[친구] 바깥양반’, ‘○○[친구] 씨 남편’, ‘○○[친구 자녀] 아버지’, ‘○○ 아빠’, ‘○ 과장 남편’, ‘○ 과장님’이라고 한다. 친구의 남편을 가리켜 ‘신랑’이라고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으나 격식을 갖추어야 하는 상황에서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자녀에게는 ‘○○[친구 자녀] 아버지’, ‘○○ 아빠’, ‘아저씨’, ‘○○[지역] 아저씨’, ‘○ 과장님’으로 지칭한다. 다른 친구에게는 ‘○○[친구] 남편’, ‘○○[친구] 바깥양반’, ‘○○ [친구] 씨 남편’, ‘○○ 씨’, ‘○○○ 씨’, ‘○○[친구 자녀] 아버지’, ‘○○ 아빠’, ‘○ 과장 남편’으로 지칭한다.

표 II-5 친구의 남편에 대한 호칭, 지칭

호 칭		○○ 씨, ○○○ 씨, ○○[친구 자녀] 아버지, ○○ 아빠, 과장님, ○ 과장님, 선생님, ○ 선생님
지 칭	당사자에게	○○ 씨, ○○○ 씨, ○○[친구 자녀] 아버지, ○○ 아빠, 과장님, ○ 과장님, 선생님, ○ 선생님
	해당 친구에게	남편, 바깥양반, ○○ 씨, ○○○ 씨, ○○[친구 자녀] 아버지, ○○ 아빠, ○ 과장님
	남편에게	○○[친구] 남편, ○○[친구] 바깥양반, ○○[친구] 씨 남편, ○○[친구 자녀] 아버지, ○○ 아빠, ○ 과장 남편, ○ 과장님
	자녀에게	○○[친구 자녀] 아버지, ○○ 아빠, 아저씨, ○○[지역] 아저씨, ○ 과장님
	다른 친구에게	○○[친구] 남편, ○○[친구] 바깥양반, ○○[친구] 씨 남편, ○○ 씨, ○○○ 씨, ○○[친구 자녀] 아버지, ○○ 아빠, ○ 과장 남편

남편의 친구

남편 친구를 부르는 말은 ‘○○ 씨’, ‘○○○ 씨’, ‘○○[남편 친구의 자녀] 아버지’,

‘과장님’, ‘○ 과장님’, ‘○○○ 과장님’, ‘선생님’, ‘○ 선생님’, ‘○○○ 선생님’이다. 남편 친구인 당사자에게 지칭할 때도 호칭과 동일하다. 남편의 친구를 남편에게 가리킬 때에는 ‘○○ 씨’, ‘○○○ 씨’라고 하며,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남편 친구의 자녀] 아버지’도 쓸 수 있다. 또 남편 친구의 직함을 사용하여 남편에게 ‘○ 과장님’, ‘○○○ 과장님’, ‘○ 선생님’, ‘○○○ 선생님’이라고 지칭한다.

자녀에게 지칭할 때는 ‘아저씨’, ‘○○[지역] 아저씨’, ‘○○[남편 친구의 자녀] 아버지’, ‘○ 과장님’으로 하고, 그 밖의 사람에게 지칭할 때는 ‘○○ 씨’, ‘○○○ 씨’, ‘○○[남편 친구의 자녀] 아버지’, ‘○ 과장님’, ‘○○○ 과장님’, ‘○ 선생님’, ‘○○○ 선생님’을 쓴다.

표 Ⅱ-6 남편의 친구에 대한 호칭, 지칭

호 칭		○○ 씨, ○○○ 씨, ○○[남편 친구의 자녀] 아버지, 과장님, ○ 과장님, ○○○ 과장님, 선생님, ○ 선생님, ○○○ 선생님
지 칭	당사자에게	○○ 씨, ○○○ 씨, ○○[남편 친구의 자녀] 아버지, 과장님, ○ 과장님, ○○○ 과장님, 선생님, ○ 선생님, ○○○ 선생님
	남편에게	○○ 씨, ○○○ 씨, ○○[남편 친구의 자녀] 아버지, ○ 과장님, ○○○ 과장님, ○ 선생님, ○○○ 선생님
	자녀에게	아저씨, ○○[지역] 아저씨, ○○[남편 친구의 자녀] 아버지, ○ 과장님

지 칭	그 밖의 사람에게	○○ 씨, ○○○ 씨, ○○[남편 친구의 자녀] 아버지, ○ 과장님, ○○○ 과장님, ○ 선생님, ○○○ 선생님
--------	--------------	---

아내의 친구

아내의 친구를 부르는 말은 ‘○○ 씨’, ‘○○○ 씨’, ‘○○[아내 친구의 자녀] 어머니’, ‘아주머니’, ‘○ 선생’, ‘선생님’, ‘○ 선생님’, ‘○○○ 선생님’, ‘과장님’, ‘○ 과장님’, ‘○○○ 과장님’, ‘○ 여사’, ‘여사님’, ‘○ 여사님’, ‘○○○ 여사님’이다. 아내 친구인 당사자에게 지칭할 때도 호칭과 같다.

아내에게 지칭할 때는 ‘○○ 씨’, ‘○○○ 씨’라고 하며,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아내 친구의 자녀] 어머니’도 쓸 수 있다. 또 아내 친구의 직함을 사용하여 아내에게 ‘○ 과장님’, ‘○○○ 과장님’, ‘○ 선생’, ‘○ 선생님’, ‘○○○ 선생님’이라고 지칭한다. 자녀에게 지칭할 때는 ‘아주머니’, ‘○○[지역] 아주머니’, ‘○○[아내 친구의 자녀] 어머니’, ‘○ 과장님’을 쓴다. 아내의 친구를 그 밖의 사람에게 가리킬 때에는 ‘○○ 씨’, ‘○○○ 씨’, ‘○○[아내 친구의 자녀] 어머니’, ‘○ 과장님’, ‘○○○ 과장님’, ‘○ 선생님’, ‘○○○ 선생님’이라고 한다.

표 II-7 아내의 친구에 대한 호칭, 지칭

호 칭	○○ 씨, ○○○ 씨, ○○[아내 친구의 자녀] 어머니, 아주머니,
-----	---

Ⅱ. 사회에서의 호칭, 지칭

호 칭		○ 선생, 선생님, ○ 선생님, ○○○ 선생님, 과장님, ○ 과장님, ○○○ 과장님, ○ 여사, 여사님, ○ 여사님, ○○○ 여사님
지 칭	당사자에게	○○ 씨, ○○○ 씨, ○○[아내 친구의 자녀] 어머니, 아주머니, ○ 선생, 선생님, ○ 선생님, ○○○ 선생님, 과장님, ○ 과장님, ○○○ 과장님, ○ 여사, 여사님, ○ 여사님, ○○○ 여사님
	아내에게	○○ 씨, ○○○ 씨, ○○[아내 친구의 자녀] 어머니, ○ 과장님, ○○○ 과장님, ○ 선생, ○ 선생님, ○○○ 선생님
	자녀에게	아주머니, ○○[지역] 아주머니, ○○[아내 친구의 자녀] 어머니, ○ 과장님
	그 밖의 사람에게	○○ 씨, ○○○ 씨, ○○[아내 친구의 자녀] 어머니, ○ 과장님, ○○○ 과장님, ○ 선생님, ○○○ 선생님

아버지의 친구

아버지의 친구를 부르거나 가리키는 말은 일반적으로 ‘아저씨’, ‘○○[지역] 아저씨’ 이나, 어릴 때는 물론 성인이 되어서도 친근하게 ‘○○[아버지 친구의 자녀] 아버지’ 라고 할 수 있다. 성인이 되면 예를 갖추어 ‘어르신’, ‘선생님’ 이라고 부르거나 가리킬 수도 있다. 또 아버지 친구의 직함을 빌려 ‘과장님’, ‘○ 과장님’ 으로 부르거나 가리킬 수 있다.

표 II-8 아버지의 친구에 대한 호칭, 지칭

호칭 및 지칭	아저씨, ○○[지역] 아저씨, ○○[아버지 친구의 자녀] 아버지, 어르신, 선생님, 과장님, ○ 과장님
---------	---

어머니의 친구

어머니의 친구를 부르거나 가리키는 말은 일반적으로 ‘아주머니’, ‘○○[지역] 아주머니’, ‘○○[어머니 친구의 자녀] 어머니’ 이다. 어릴 때는 물론 성인이 되어서도 ‘아줌마’, ‘○○[지역] 아줌마’ 를 쓰므로 친근하게 ‘아줌마’, ‘○○[지역] 아줌마’ 를 쓸 수도 있다. 성인이 되면 예를 갖추어 ‘어르신’, ‘선생님’ 이라고 부르거나 가리킬 수도 있다. 또 어머니 친구의 직함을 빌려 ‘과장님’, ‘○ 과장님’ 으로 부르거나 가리킬 수 있다.

표 Ⅱ-9 어머니의 친구에 대한 호칭, 지칭

호칭 및 지칭	아주머니, ○○[지역] 아주머니, 아줌마, ○○[지역] 아줌마, ○○[어머니 친구의 자녀] 어머니, 어르신, 선생님, 과장님, ○ 과장님
---------	---

친구의 아버지

친구의 아버지에 대한 호칭은 ‘아저씨’, ‘○○[지역] 아저씨’, ‘○○[친구] 아버지’, ‘아버님’, ‘○○[친구] 아버님’, ‘어르신’, ‘○○[친구의 자녀] 할아버지’이다. 친구의 이름을 넣어 ‘○○[친구] 아버님’으로 부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친구의 이름을 넣지 않은 ‘아버님’이란 말이 친구의 아버지를 부르는 말로 적당한지 의문이 제기되기도 하지만 이름이 생략되었다는 전제 아래 ‘아버님’이라고 부를 수 있다. 또 친구 자녀 이름을 넣어 ‘○○[친구의 자녀] 할아버지’처럼 부를 수도 있다.

친구의 아버지인 당사자에게 지칭하는 말은 호칭과 같다. 친구 아버지를 해당 친구에게 지칭할 때에는 ‘아버님’, ‘아버지’를 쓴다. 어릴 때에는 친구의 아버지를 해당 친구에게 ‘아빠’로, 성인이 되어서는 친구의 아버지를 해당 친구에게 ‘어르신’, ‘부친’, ‘춘부장’으로 지칭할 수도 있다.

표 II -10 친구의 아버지에 대한 호칭, 지칭

호 칭		아저씨, ○○[지역] 아저씨, ○○[친구] 아버지, 아버님, ○○[친구] 아버님, 어르신, ○○[친구의 자녀] 할아버지
지 칭	당사자에게	아저씨, ○○[지역] 아저씨, ○○[친구] 아버지, 아버님, ○○[친구] 아버님, 어르신, ○○[친구의 자녀] 할아버지
	해당 친구에게	아버님, 아버지, 아빠, 어르신, 부친, 춘부장

친구의 어머니

친구의 어머니에 대한 호칭은 ‘아주머니’, ‘○○[지역] 아주머니’, ‘아줌마’, ‘○○[지역] 아줌마’, ‘어머님’, ‘○○[친구] 어머님’, ‘○○[친구] 어머니’, ‘○○[친구] 엄마’, ‘어르신’, ‘○○[친구의 자녀] 할머니’이다. ‘○○[친구] 어머님’으로 부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름이 생략되었다는 전제 아래 ‘어머님’을 쓸 수 있으며 친구 자녀 이름을 넣어 ‘○○[친구의 자녀] 할머니’처럼 부를 수도 있다.

친구의 어머니인 당사자에게 지칭하는 말은 호칭과 같다. 친구 어머니를 해당 친구에게 지칭할 때는 ‘어머님’, ‘어머니’를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어릴 때에는 친구의 어머니를 해당 친구에게 ‘엄마’로, 성인이 되어서는 친구의 어머니를 해당 친구에게 ‘어

르신', '모친', '자당' 으로 지칭할 수도 있다.

표 Ⅱ-11 친구의 어머니에 대한 호칭, 지칭

호 칭		아주머니, ○○[지역] 아주머니, 아줌마, ○○[지역] 아줌마, 어머님, ○○[친구] 어머님, ○○[친구] 어머니, ○○[친구] 엄마, 어르신, ○○[친구의 자녀] 할머니
지 칭	당사자에게	아주머니, ○○[지역] 아주머니, 아줌마, ○○[지역] 아줌마, 어머님, ○○[친구] 어머님, ○○[친구] 어머니, ○○[친구] 엄마, 어르신, ○○[친구의 자녀] 할머니
	해당 친구에게	어머님, 어머니, 엄마, 어르신, 모친, 자당

남자 선생님의 아내

남자 선생님의 아내를 부르는 말과 남자 선생님의 아내를 그 당사자와 해당 선생님에

게 가리키는 말은 일반적으로 ‘사모님’이며 여성의 사회 진출이 활발해짐에 따라 ‘선생님’, ‘○ 선생님’, ‘○○○ 선생님’, ‘과장님’, ‘○ 과장님’으로도 쓴다. 선생님은 예의를 갖추어 대하는 것이 우리의 전통이고, 선생님을 높이는 뜻에서도 선생님의 아내를 높여야 한다.

표 II-12 남자 선생님의 아내에 대한 호칭, 지칭

호 칭		사모님, 선생님, ○ 선생님, ○○○ 선생님, 과장님, ○ 과장님
지 칭	당사자 및 해당 선생님에게	사모님, 선생님, ○ 선생님, ○○○ 선생님, 과장님, ○ 과장님

여자 선생님의 남편

예전에는 여자 스승이 거의 없어서 그런지 여자 선생님의 남편을 부르는 전통적인 말이 없었다. 그러나 지금은 여자 스승도 많고, 여자 스승의 남편에 대한 호칭, 지칭이 필요하기도 하다. 여자 선생님의 남편을 부르는 말은 ‘사부(師夫)님’, ‘선생님’, ‘○ 선생님’, ‘○○○ 선생님’, ‘과장님’, ‘○ 과장님’이다.

여자 선생님의 남편에 대한 호칭, 지칭으로 많은 사람들이 ‘사부님’을 쓰고 있는데 이때 ‘사부’의 한자는 ‘아버지 부(父)’가 아니라 ‘시아비 부(夫)’를 쓴 ‘사부(師夫)’이다. 여자 선생님의 남편을 학생이 당사자와 해당 여자 선생님에게 지칭할 때는 호칭을 그대로 쓰고, 학부모가 지칭할 때는 ‘바깥어른’도 함께 쓸 수 있다.

Ⅱ. 사회에서의 호칭, 지칭

표 Ⅱ-13 여자 선생님의 남편에 대한 호칭, 지칭

호 칭	사부(師夫)님, 선생님, ○ 선생님, ○○○ 선생님, 과장님, ○ 과장님
지 칭	당사자 및 해당 선생님에게 사부(師夫)님, 선생님, ○ 선생님, ○○○ 선생님, 과장님, ○ 과장님, 바깥어른

15. 직원과 손님 사이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을 만난다. 같은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 물건을 사고팔면서 만나는 사람들, 은행이나 관공서 등에서 업무를 통해 만나는 사람들, 그리고 길을 물을 때처럼 우연히 만나는 사람들까지도 모두를 정중한 마음으로 부르고 가리켜야 한다.

식당, 상점, 회사, 관공서 등의 직원

식당, 상점, 회사, 관공서 등의 직원을 부르고 가리키는 말은 ‘아저씨’, ‘젊은이’, ‘총각’, ‘아주머니’, ‘아가씨’, ‘○○ 씨’, ‘○○○ 씨’, ‘과장님’, ‘○ 과장님’, ‘○○○ 과장님’, ‘○ 과장’, ‘○○○ 과장’, ‘선생님’, ‘○ 선생님’, ‘○○○ 선생님’, ‘○ 선생’, ‘○○○ 선생’이다. 그리고 주로 식당, 상점 등에서 종업원을 부를 때 쓰는 말은 ‘여기요’와 ‘여보세요’이다.

식당, 상점 같은 영업소의 남자 종업원을 부를 때와 가리킬 때는 ‘아저씨’, ‘젊은이’, ‘총각’을 상황에 따라 적절히 쓴다. 여자 종업원을 부를 때와 가리킬 때는 ‘아주머니’, ‘아가씨’를 상황에 따라 적절히 쓴다. ‘아줌마’는 상대방을 높이는 느낌이 들지 않으므로 나이가 많은 종업원이나 친한 사이가 아닌 종업원에게는 호칭, 지칭으로 쓰지 않는 것이 좋다. 손님이 자기보다 나이 어린 여자 종업원을 ‘언니’ 또는 ‘이모’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는데 바람직하지 않은 표현이다. 물론 어린이는 ‘아줌마’, ‘언니’라고 부를 수 있다.

한편, 많은 사람들이 은행 같은 회사나 구청 같은 관공서 등의 직원을 어떻게 불러야 하는지 궁금해 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남녀 모두 ‘○○ 씨’, ‘○○○ 씨’, ‘과장님’, ‘○ 과장님’, ‘○○○ 과장님’, ‘○ 과장’, ‘○○○ 과장’을 호칭과 지칭으로 쓸 수 있다. 또한 이름이나 직함을 모를 때에는 일반적으로 ‘여기요’, ‘여보세요’라고 부를 수 있는데, ‘선생님’, ‘○ 선생님’, ‘○○○ 선생님’, ‘○ 선생’, ‘○○○ 선생’이라고도 부를 수 있다.

표 II-14 식당, 상점, 회사, 관공서 등의 직원에 대한 호칭, 지칭

호칭 및 지칭	아저씨, 젊은이, 총각, 아주머니, 아가씨, ○○ 씨, ○○○ 씨, 과장님, ○ 과장님, ○○○ 과장님, ○ 과장, ○○○ 과장, 선생님, ○ 선생님, ○○○ 선생님, ○ 선생, ○○○ 선생, [주로 식당, 상점 등에서의 호칭] : 여기요, 여보세요
---------	--

식당, 상점, 회사, 관공서 등의 손님

식당, 상점 등의 영업소에서 손님을 부르거나 가리킬 때는, 손님의 성별이나 나이에 관계없이 ‘손님’이라고 한다. 직함을 정확히 아는 손님일 때는 ‘과장님’, ‘○ 과장님’, ‘○○○ 과장님’ 처럼 직함이나, 성(姓) 또는 성명에 직함을 합쳐 부르고 가리킬 수 있다.

은행, 관공서 측에서는 손님이 누구든지 ‘손님’, ‘○○○ 님’, ‘○○○ 손님’으로 부르고 가리킨다.

한편, 지하철, 철도, 항공편 같은 교통수단을 운행하는 곳에서는 ‘손님’ 대신 ‘승객’이라는 말을 쓸 수도 있다. 이때 ‘고객’ 보다는 ‘차, 배, 비행기 따위를 타는 손님’이라는 뜻이 담긴 ‘승객’을 쓰는 것이 좋다.

표 II-15 식당, 상점, 회사, 관공서 등의 손님에 대한 호칭, 지칭

호칭 및 지칭	손님, ○○○ 님, ○○○ 손님
---------	-------------------

